

## 쿠팡-정부 전방위 충돌

# 총수지정 초유의 소송전 정보유출 과징금 초읽기

개인정보보호법 처분 사전통지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  
총수지정 문제 강경대응 지속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총수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전방위 충돌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한 지정 결정에 불복해 사상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유통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초 쿠팡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사관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이후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상반기 내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쿠팡 측의 의견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6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 지난해 쿠팡Inc의 매출이 약 49조 원임을 고려할 때 산술적인 최대 과징금은 1조 5000억 원대에 달한다. 다만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액 제외 및 고시에 따른 감경 요소 등을 적용하면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유출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지난해 SK텔레콤이 기록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개인정보 유출 제재와 별개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에서도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냈다. 1986년 제도 도입 이래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동일인을 법원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계열사 지분 공시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쿠팡은 친족의 지분 보유나 임원 재직 사실이 없어 규제 명분이 부족하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시 의무를 유예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곽노정 대표, 美 빅테크 주요인사 만난다

(SK하이닉스)

메모리 공급 등 파트너십 강화 전망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잇달아 만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공급을 둘러싼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곽 사장은 이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열리는 'MS CEO 서밋 2026'에 참석한다. MS CEO 서밋은 전 세계 주요 기업 수장과 업계 전문가를 본사로 초청해 기술 트렌드와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비공개 행사다. 초청장을 받은 일부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자리로, 곽 사장은 지난 2024년에 이어 이번에도 초청을 받았다. 국내 통신·ICT 기업 중에서는 흥번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마무리에는 빌 게이츠 자택에서 만찬도 예정돼 있다.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된 자리로, 곽 사장이 해당 일정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공급 전략과 차세대 제품을 둘러싼 기술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가열되면서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구조를 다지는 일이 SK하이닉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월 나델라 CEO와 직접 만나 HBM 협력 확대와 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솔루션 분야로의 협력 범위 확장을 논의한 바 있어, 이번 곽 사장의 방문은 그 후속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곽 사장은 서밋 기간 MS 외에도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빅테크 CEO들과 추가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MS를 비롯해 주요 빅테크 전반으로 AI 메모리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번 서밋이 복수의 협력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수출스타 메이커스' 가동... 기업 통합지원

### 'K-수출스타 500' 출범식

2030년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  
5개 기관 'K-수출 원팀' 디지털 협약식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 금융, 인증 등 수출 지원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올해 'K-수출스타 500' 사업에 선정된 유망기업 100개사와 5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K-수출스타 500'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해 우리 수출의 허리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월 모집을 시작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올해 1회차 100개 기업은 소비재(43개사), 주력산업(36개사), 첨단산업(21개사)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최대 3년간 기업당 최대 5.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5개 수출지원기관이 협업해 마케팅부터 금융, 해외 인증, R&D까지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간담회와 2부 출범식으로 진행됐다. 성수동 플라그쉽 스토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업종별 대표기업 7개사가 참석해 해외인증 취득과 현지 공동 마케팅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출범식에서는 5개 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K-수출 원팀' 디지털 협약식이 열렸다. 각 기관은 '수출스타 메이커스' 협력체계를 가동해 기관별 칸막이 없이 기업 수요에 맞춘 통합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허리가 되는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스타기업을 두텁게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5개 수출 지원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100개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유망기업을 추가 선정해 총 500개의 수출 중추기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중동 휴전협상 결렬 위기... 정부, 에너지 등 관리·대응 강화

산업부 필수물자 수급 행정력 집중

중동 전쟁의 휴전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보험세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의료기기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4% 상승한 배럴당 104.58달러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0.3% 오른 98.3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쟁 이전(2.27일) 대비 각각 44.3%, 46.7%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등에 따라 휘발유 2011원대, 경유 2006원대에서 보험세를 유지 중이다. 전쟁 이전과 비교해 각각

18.9%, 25.6% 올랐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필수 물자 수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의료용 장갑 등은 현재 평시 재고를 유지 중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업부·식약처·복지부가 협력해 최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달 시행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고강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2차 특별 단속 결과,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6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체 공급 방안(시제품 테스트)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들은 아직까지 큰 차질 없이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브롬화수소는 일본(46%)과 미국(25%) 위주로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황산니켈은 내수 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아 중국의 수출 통제 영향도 미미할 전망이다. 에틸렌 가스는 조선-석유화학사간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을 완료했다.

정부는 농업용 멀칭필름, 페인트, 포장재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페인트 원료인 기초유분과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화학산업협회 33개 회원사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PE·PP 등 주요 제품의 내수 최우선 공급을 표명한 바 있다. 여천NCC(60%→65%)와 대한유화(62%→72%)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며 수급 불안 해소에 동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 KDI "내수·수출 양호... 경기 회복흐름"

중동 사태로 인한 하방위험 상존 진단

중동 사태의 지속으로 국내 경기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가 고공행진 등의 외부 요인에는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KDI는 12일 펴낸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

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 달 보고서에 비해서는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다. 앞선 4월호에서는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내수도 개선세를 유지하는 모습에 5월 보고서에선 경기 회복세를 언급한 것.

보고서는 "건설 투자가 다소 부진하나,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소비개선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유 수송 차질로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됐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중동발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